



가톨릭마산

동참

[나비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의 이론에 의하면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은 것이 계기가 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나비효과는 자연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 복음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허기진 군중에게 측은지심을 느껴 빵을 많게 하는 물리적인 기적을 베푸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굳이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요청에 누군가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았을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중엔 많은 사람이 빵을 내어놓으면서 일어난 기적일 수 있다. 바로 나비효과처럼 말이다. 본당 성지순례 때나 산행을 하다 각자가 준비한 먹거리를 내어놓으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 기적은 오늘 미사 1독서의 “자, 목마른 자들아,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오늘 미사의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신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는 일이 생겼다. 바로 코로나19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Untact(비대면이라는 뜻의 신조어)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신앙도 교회도 예상 밖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동참’과 ‘내어놓음’이 있을 때 지금의 위기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미사에서 빵을 나누는 지금의 일상이 언제든 다시 박탈당할 수 있는 선물임을 기억하자. 마음만은 Untact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복음의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식탁에 자주 모여 빵(성체)을 받아 모시고 그 힘으로 사랑과 친교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하자. 그러면 교회도 신앙도 지켜질 것이고 코로나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인석 베드로 신부 | 양곡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55,1-3
화 답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서	로마 8,35,37-39
복 음	마태 14,13-21

주일 진례

세계 교회의 아이들과 여름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바티칸의 여름 캠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교회의 여름 캠프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티칸이 후원하는 여름 캠프가 7월 초에 개최되었습니다. 이곳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바오로 6세 홀에서 아침 식사 중에 방문하셨는데, 각 테이블을 돌며 참여 어린이들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캠프 놀



출처: 바티칸 뉴스

이장에도 방문하셔서 아동들과 바닥에 앉아 게임을 즐기며, 당신의 새 친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 즐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지난 7월 초부터 바티칸 정원과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여름 캠프는 바티칸 직원들의 자녀 백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기도, 교리 교육, 게임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에 대항하는 건강을 챙기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한 관계자는 이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그들의 여름을 차분하게” 보내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신앙 캠프를 열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차분하게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불같은 여름’: “영의 아이들에게 내린 희망의 빛”

아프리카 가나에는 잘못된 지역 신심에 의해 희생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이 어린이들을 “영의 아이들”(Spirit Children)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육체적으로 ‘나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여겨져 지역 공동체로부터 유기되고 배척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부된 아이들’은 사랑의 마리아 수녀회에서 설립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한 나자렛집’에 머물며 ‘육의 아이들’이 아닌 ‘영의 아이들’로 새로 태어나 희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자인 무무니 수녀는 ‘나자렛집’에는 그리스도교 뿐 아니라, 이슬람, 지역 신심을 믿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며, 대부분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지역에서 ‘기형 또는 장애’는 ‘악’이라고 믿고 있으며 불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뇌전증, 소아마비, 수두증 등의 질환을 앓는 이들은 지역의 불운을 떨쳐버리게 하는 ‘버려진 희생 제물’이 됩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가 되는 오늘날 비대면 시대 상황에서 ‘하느님의 구원 손길’이 절실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의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무니 수녀

출처: 바티칸 뉴스



진 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예수님의 영광이 지상 생활 가운데 제자들에게 드러난 사건을 기념한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마태 17,1-9; 마르 9,2-10; 루카 9,28-36),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이후,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아마도 타볼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제자들은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도 보았다.

동방교회는 이 사건을 4세기부터 기념하였는데, 교황 갈리스토 3세는 1457년 보편 교회의 축일로 지정하였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전승에 따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의 40일 전에 지낸다. 십자가로 드러날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 미리 드러난 거룩한 변모 사건은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주님의 축일과 신비 감사송 9: 변모의 신비)을 없애는데 기여한다.

성모님께 간절한 도움 청하며 걸어온 월남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목주기도 100만 단 바치면서 성전건축

아직 부산교구 시절이었다. 마산성당(현 완월동성당) 9대 주임 김두호 알로이시오 신부는 신마산 지역 성당 설립을 계획했고, 1957년 6월 신마산본당(현 월남동본당) 설립이 이루어졌다. 김두호 신부가 겸임하여 초대 주임이 되었으나 건강이 여의치 않아, 5개월 남짓 후 1958년 정삼규 요한 신부가 부임하여 마산본당과 신마산본당을 같이 사목했다. 기성회를 통해 식산은행 건물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임시 성당으로 개조하고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월남동본당의 역사는 애매한 점이 많다. 한 분이 두 본당을 맡아 사목하니 구분이 확연하지 않았다.

1965년 1월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가 4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마산성당과는 완전히 분리된 셈이다. 바로 성전 신축을 계획하고 5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온 교우들의 염원과 땀으로 성전을 지었다. 당시 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는 목주기도 100만 단을 바치면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교우들은 지극정성으로 약속을 지켰다. 감동한 최 주교는 거액의 기금과 프랑스에서 만든 청동 종을 선물했다. 어렵사리 건축을 하는 사이 1966년 마산교구가 설정되었고, 이듬해 박재근 아우구스티노 신부로 바뀌었다. 1968년 3월 마산교구장 김수환 주교 집전으로 월남동성당 헌당식을 올렸다. 파티마 성모 발현(1917년) 50주년을 맞은 즈음에 교우들이 목주기도를 엮어 올린 시간도 바쳤다. 본당주보는 '파티마의 성모'로 정했다.



성전 화재로 탄 상처, 굳건히 치유

1990년 7월 21일 새벽이었다.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성전 내부가 완전히 소실되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다. 성전 바닥은 재와 물 범벅이 된 처참한 광경이었다.故 서원열 주임 신부는 성체가 가득 담긴 성함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오열하였고, 그를 본 교우들도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다. 푹푹 찌는 더위와 절망감을 뒤로 하고, 사제를 중심으로 월남동성당 공동체가 일어섰다. '우리 성전은 우리 손으로'라는 의지를 결의하고 첫 성전을 짓던 염원과 땀을 다시 불러내었다. 불에 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공동체는 더 뜨거운 불꽃을 태웠다. 성전 복구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이 일(성전 복구)을 간절히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라는 표어를 씬 없이 복창하며 하느님께 매달렸다. 10개월의 촘촘

한 결속의 시간이 지나고, 1991년 5월 21일 교구장 박정일 주교 집전으로 성전 축성식을 가졌다. 이날 사제, 수도자, 교우 등 900여 명의 은인들이 함께하여 감동을 나누었다. 각 본당의 도움에 감사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견담에 서로 박수를 보냈다. 당시 故 서원열 신부의 소회를 적은 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교우가 있다. “성전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전소되어 버린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신기한 일이 있었다. 불타는 창 가까이 있는 성심상과 벽속 감실안의 성체와 제의실 모퉁이의 제의장 속 제의는 그대로 있었다. 성심상과 성체와 제의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끝까지 사제로 잘 살아가라는 희망의 표지로 용기를 얻었다.”

또 새로운 성전 건립에 나서다

아직 화재에서 성전을 복구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댕거리 성전 건립을 위하여 다시 공동체가 뭉쳐야 하는 때가 왔다. 1997년 1월부터 목주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과 더불어 기금 신립을 하며, 돈이 되는 일에는 발 벗고 나섰다. 바자회를 하고, 주점을 빌려 일일주점도 열었다. 행사장에서 김밥과 커피를 팔고, 음악회 티켓도 팔았다. 교우들의 손을 모아 성전을 건립하고 1998년 4월 5일 마침내 봉헌식을 이루었다. 해운동본당(현 월영본당) 분리를 매듭지으면서, 초등학교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헌금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대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험난한 그 순간이 은총이었다고 했다.



본당 바자회 중

뿌듯한 마음도 잠시 그다음이 문제였다. 새 성당으로 살림을 내고 보니, 월남동성당은 교우들의 고령화가 심각했다. 다음 해에 부임한 사제는 첫 느낌이 “밥그릇에서 가운데 밥이 움푹 파인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허탈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래서 어느 교우는 어떻게든 성당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일부러 빨간색 옷을 입고 성당에 갔다고도 했다. 2001년에는 시대에 맞게 예술성을 살려 제작한 성모상을 모시고 동산을 아담하게 조성했다. 창고에 잠자고 있던 청동 종은 종각을 만들어 설치하고, 평소에는 치지 못하지만 장례식에는 조종을 울리도록 했다.

다시 손 모아 본당 설립 60주년을 안다

앞서도 말했지만, 월남동본당 설립은 1957년과 1967년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신마산성당으로 출발하며 마산성당과 혼합 운영되었던 시간, 부산교구에서 마산교구로 이동하는 과도기의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 때가 있었다. 1967년 설립으로 기록된 오랜 시간도 있었다.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정비하고, 헛갈린 설립일은 1957년 6월 20일로 확실하게 기록했다. 2016년 6월 ‘은총의 60주년, 기쁨과 감사의 60주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해까지의 청사진을 펼쳤다.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재도약을 꿈꾸며 공동체의 힘을 북돋웠다. 몸에 밴대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연륜이 깊이 쌓인

교우들이 다시 손길을 모았다. 2017년 「월남동성당60년사」를 만들면서, 하느님 섭리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교구장 배기현 주교 집전으로 6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월남동성당 출신 배기현 콘스탄틴 교구장을 모시고 60년 역사를 말하는 그날은 교우들에게 기쁨이 샘솟는 최고의 날이 되었다.



청동 종



기억할 선종 사제
장병화(요셉) 주교
1990년 8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주선(안토니오) 신부
1995년 8월 3일

교구/본당

신학생 하계연수

일사: 8월 3일(월)~4일(화)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 신학생(휴학생 포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46차 창세기 연수

일사: 8월 16일(주일) 14:00~20:3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일사: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2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교리교사 하계피정

일사: 8월 22일(토) 14:00~23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그리스도인의 돌봄 교육
주제성구: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15)
대상: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신청: 8월 12일(수)까지 신청서, 참가비를 팩스발송 및 입금(신청순 38명 마감)
참가비: 6만 원/ 교구 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마스크, 미사 준비, 개인컵,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원활한 피정 준비를 위해 신청마감 준수
이번 피정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1인 1실 사용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사: 8월 24일(월) 09:30~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노인학교 봉사자, 노인사목관련 봉사자, 노인학교 담당 수도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교육비: 3만 원(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신청: 8월 14일(금)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
※ 입금 시 '본당+노인학교'로 기입.
(예-양덕노인학교)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소공동체장 교육

일사: 8월 31일(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임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컵
참가비: 1인 1만 원(자료집, 점심 제공)
신청: 8월 21일(금)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
※ 입금 시 '본당명+신임'로 기입. (예-양덕신임) 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바랍니다.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FAX - 055·249·7024

제17차 약혼자 주말

일사: 9월 4일(금) 19:30~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1인 14만 원(부부당 28만 원)
신청: 8월 9일(주일)까지

<p>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리코 투어 010-5150-2625</p>	<p>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p>	<p>SM 수맥홍(홍)침대 주부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달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p>
<p>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p>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p>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FAX- 055·249·7029

▶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8월 기도회 모임

일시: 8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강당

준비물: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마스크 착용 필수, 미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차 가톨릭 상장례 봉사자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일시: 8월 28일(금) 14:00~30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이순신로 115-758)

대상: 1차 가톨릭 상장례 전문교육 수강자 및 연례회 봉사자

교육비: 1인 16만 원(1인 1실 사용)

신청: 8월 19일(수)까지(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인원 제한으로 1차 교육 수강자 우선 접

수 후 선착순 신청 마감)
계좌: 농협 301-0226-0503-81, (재)마산교구
준비물: 개인첩, 상장예식서, 미사 준비
문의: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4581·5420
※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 되거나 참가자가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이 취소됩니다.

▶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일정: 8월 6일~9일(우도), 8월 12일~15일(우도), 8월 17일~19일, 8월 21일~23일, 8월 31일~9월 3일(추자도), 9월 5일~8일(추자도)

문의: 02·773·1463, 064·756·6009

▶ 기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8월 13일~16일, 8월 25일~27일, 8월 31일~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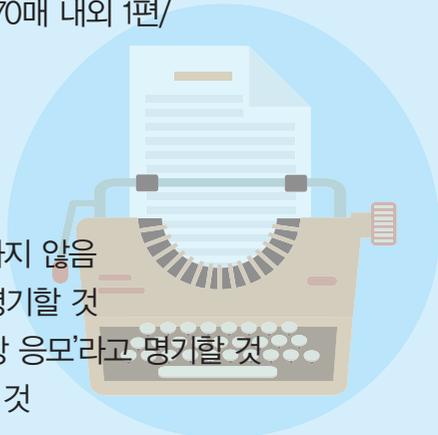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8월 9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후 저희 수도원에서도 7월부터 개인 피정 손님과 미사 참례하러 오시는 분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요.

봉쇄수도원이라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몇 달간 피정 손님과 미사 참례 오시는 분이 거의 전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수도원도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 정도는 세상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동의 주요 생산품인 유기농 딸기잼의 원료인 유기농 딸기 구입에 차질이 생겨 저희들이 원하던 양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인 지금은 모든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라 잼용 유기농 딸기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올해 유기농 딸기 작황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딸기 따는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올 수 없는 상황으로 노동인력 수급이 부족하고, 60℃에 가까운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딸기 따는 일이 너무 고된 일이라, 그나마 일하던 분들이 임금을 받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나오지를 않아 잼용 딸기를 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하게 된 복음이 오늘 오천 명을 먹이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듯 꽃혔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유기농 딸기 원료가 모자라 잼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어리둥절하여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이사 55,2-7-1. 3-7-1) 자꾸 ‘들어라, 들어라’ 하시는 말씀까지 귀에 뱅뱅 울렸습니다.

다시 복음 말씀을 읽으니,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일이 지금도 매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야 할 참된 먹거리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